

마데레스



표어 : 너나 잘하세요

은석교회는



교회를 나의 자존심으로 삼지
않으며 오히려 그 자존심조차
악으로 국경하며 스스로를
비관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진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교회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형통과 축복을
바라보지 않으며 오로지
불쌍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만
모이기를 힘씁니다.

나는 돌아가리리

신윤식

천 년이 지나간 어제같이
밤의 한 순간 같이
잠깐 자는 것 같다가
흔적도 없이
소리도 없이
영원으로 숨겨지리라

아침에 돋는 풀 같이
내 할 일 다 하는 날
조용히 사라지리니
이 땅의 모든 무거운 짐 내려놓고
복된 길로 들어가는 그 날이
내게는 행복이리라

그 때까지
내 숨 다하는 날까지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남은 일생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평생이 다하는 날
주님 바라보면서
살게 하신 것 감사하며
영원으로 잠자듯 평안히 돌아갔으면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0-5831-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3.9.1

발행호수 제21권 35호

예 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몸담고 사는 세상 현실에서 유효할까요. 무효할까요? 가령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눅 6:27-28)는 말씀을 보면 자신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자를 넘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아예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라고까지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신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물론 들을 때는 ‘참 좋은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유효하게 작용하는가를 생각하면 은혜보다는 무력감에 빠지는 것이 더 옳다고 할 것입니다. 삶의 현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은 인간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인격과 성품을 개발하여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생각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세상 현실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어떤 사람이 천국 백성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자질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실천하여 천국 백성이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말씀을 인간의 자질로 극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락시키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가득한 소위 성현들의 교훈과 같은 수준으로, 아니면 좀 더 뛰어난 교훈으로 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말씀과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너희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복수하는 세상 방식 그대로 살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일오전설교
눅 14:12-14

청할 사람

그러한 삶의 방식을 고쳐서 예수님 말씀대로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삶을 살겠다고 각오하거나 다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각오와 다짐으로 인해서 자신을 절제하거나 통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좀 더 나은 인간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스스로의 각오와 다짐도 필요하고 나름대로 유익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자신이 마치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절제하고 통제하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자기감정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고 해도 속에 감추어진 감정조차 사라지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러한 한계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과 함께 초청 받은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잔치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은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보다 높은 자가 없다고 여겨질 때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면서 높고 낮음을 건주는 것이야 말로 천국에 해당되지 않은 세상 방식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본문에서는 잔치에 초청해야 할 대상에 대해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잔치에 초청한다면 그 대상은 형제, 친척, 친구, 이웃으로 정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청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는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두렵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갚을 것이 없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갚음을 받을 것이고 그것이 복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예수님 말씀을 따라 하객을 초청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잔치는 엉망이 되고 체면도 상하고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잔치에 어떤 사람이 하객으로 참석했느냐는 것은 잔치를 베푸는 자의 체면, 위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름이 있고 힘과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참석할수록 잔치를 베푸는 주인의 위상이 올라갑니다. ‘잔치 주

인이 어떤 사람이기에 저런 사람들이 잔치에 오는가? 라며 주인을 대단한 존재로 여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는 사회 풍토입니다. 그때와 지금의 문명과 문화, 의식구조가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에 해당되는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잔치에 형제, 친척, 벗,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을 청하라는 것은 우리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비현실적인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즐거운 잔치에 형제, 친척, 벗, 부한 이웃 대신에 가난하고 병들고 절고 앓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로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멸시의 대상이며 부정한 자로 취급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사귀다면 유익보다는 손해가 될 뿐입니다. 자신도 그들과 같은 부류로 전락될 것입니다. 즐거운 잔치도 포기해야 합니다. 형제, 친척, 이웃으로부터 욕을 먹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그 같은 일을 행한다면 감동적인 일이라고 하면서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가 그런 일을 했었다는 것을 들으면 칭찬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잔치에도 그렇게 행할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 행한다면 그것은 세상과 자신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늘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과 자신을 의식하면서 자기 유익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세상 현실에서는 유효하지 않는 것으로 대접받겠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방식이나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반대의 생각을 갖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사는 우리는 천국 백성일까요 지옥의 사람일까요?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최고 수준의 도덕적 실천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당초 우리에게서 이 같은 실천을 끌어내기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안식일에 대한 바리새인의 생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등 규례에 집착하고 고집하는 것은 규례를 실천하는 것으로 자신이 가

치 있는 인간으로 격상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규례를 더 엄격하게 정하고 실천할수록 자기 위상과 가치는 격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규례문제에서 예수님에게 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안식일 규례가 금이 간다면 자신들과 일반 사람들의 구별점이 사라지고 결국 바리새파라는 이름이 지니고 있는 가치도 하락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 '제사장' '영적인 아버지' 등의 칭호로 불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도 그런 칭호로 인해서 목사가 일반 신자와는 다른 탁월한 지위로 격상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좀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망에 의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칭호와 실천과 인간관계를 통해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인간의 본질은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본래적으로 무가치한 인간의 존재는 무엇으로도 바뀔 수 없습니다. 어떤 칭호를 갖다 붙이고 수준 높은 도덕적 실천을 더한다고 해도 인간은 무가치에서 가치로 전환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적 활동과 실천을 요구하며 그것으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성경이 아닌 세상의 방식과 기준 안에서 인간을 평가하고 구별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로 인해 교회도 예수님이 잔치에 초청하라고 한 그들보다 부한 이웃에게 관심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부한 이웃으로 교회의 가치를 높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옥에 해당되는 모습에 지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도 인간의 무가치함을 잊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무가치함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자신을 낮추는 것이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우상의 다른 점이 드러납니다. 우상은 인간을 위한 신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평소에 소망하는 자기 가치의 향상을 위해 존재하고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인간은 이러한 신을 마음에 들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의 무가치함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무가치한 존재를 구원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는가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모든 가치를 두게 하고 찬송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길을 가는 것이 종교이고 이 종교에 자리하고 있는 신이 우상입니다.

신자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니 그 전에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 나의 의지와 결심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신자가 자신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은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형제를 청하면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갚음이 될까 두렵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갚음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그들을 청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청했으니 나도 나중에 처함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부자를 청함으로써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 놓으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청하는 속셈에는 갚음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성을 하나님께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것이 바로 ‘열심히 하면 복 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으로 갚아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갚으심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 열심에 대한 대가가 아닌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갚으심은 예수님의 의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것으로 갚아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의에 대한 갚으심이 땅의 것으로 된다면 예수님의 의의 가치와 땅의 가치가 동일하다는 결론이 될 뿐입니다.

예수님의 의에 대한 대가로 갚아주시는 복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무가치한 존재인 신자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함으로 가지 있는 존재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에서 자기 가치 향상을 위한 길을 신앙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는 말씀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저는 자이고 맹인인 무가치한 이들이 바로 우리들 자신임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혼인 잔치에 청함 받을 수 없는 우리가 청함을 받았음을 말해줍니다. 잔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갚음을 받기 위해 청하셨겠습니까? 우리를 청하시고 청함 받은 우리가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갚기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

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자로 살아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청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시키는 결과가 될 뿐입니다.

신자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신자라 할 수 없습니다. 늘 자신을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것을 좇을 것이고 신앙 또한 자기 가치성을 위한 도구로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무가치한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는 무관심할 뿐입니다. 대신 자기 가치가 향상되는 일은 은혜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던 말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존재 가치가 향상된다는 것으로 유혹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이것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무가치함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가치한 자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세상에서 가치 있는 자로 만들어 주는 것으로 왜곡하게 합니다. 이렇게 종교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무가치한 자를 위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로만 감사하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구절은 아마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3절)일 것입니다. 이 구절 때문에 128편은 가정의 달에 많이 설교되기도 하고 신자의 가정을 심방했을 때 설교 본문으로 자주 이용되기도 합니다. 이 구절을 토대로 해서 화목하고 행복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가정에 주어지는 복이라고 설교 하면서 이러한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 위해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며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복에 대해 말할 때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편성입니다. 즉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든 신자가 동일

주일오우설교
시 128:1-6

신자의 복

(132강 8.4일 설교)

하게 누리는 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개의 교회에서 말하는 복은 이 보편성에서 어긋나 있습니다. 즉 신앙생활만 잘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세상 일이 잘되는 복을 누린다는 것이 모든 신자에게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행복과 복은 신앙과 상관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누리는 것입니다. 비록 신앙 생활 잘하는 신자라고 해도 큰 고통을 겪으며 힘든 삶을 살 수 있음을 생각한다면 현대 교회가 말하는 복은 보편 성과는 상관없이 다만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3절의 말씀은 가정의 화목이나 행복의 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128편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것일까요? 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을 복이 있다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많이 들어 본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자를 여호와와 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따라서 신자가 우선적으로 성경 말씀에 충실하다면 적어도 복에 대한 선은 분명히 그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복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언급되는 것이지 세상의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교회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만 보여줍니다. 교회에서 주로 설교되는 내용들을 보면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성경 말씀에 의해서 삶이 실질적으로 견인 받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도 말씀에 의해 삶이 견인 받는 신자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기독교인이라는 종교의 길을 걸으며 들은 풍월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경외를 주일 성수 잘하고 기도하며 십일조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여호와 경외를 인간의 종교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경외는 공경하고 두려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 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전제하고 경외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세상과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존재, 우리의 존재, 우주 만

물의 활동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외면하고서 여호와 경외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통치를 외면하면서 여호와 경외를 말하기 때문에 여호와 경외 또한 내가 원하는 존재가 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복이 있는 것으로 말합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복이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멸망과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에 의한 은총이며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 것이 곧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으로 최초로 인정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다만 성경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인정한 것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삭은 약속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이삭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경외입니다. 그렇게 보면 경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복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고 그 보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2-4절에서 말해 줍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다”**고 말합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되고 형통한 것입니까? 수고한 대로 먹는다면 내가 일하고 수고한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이러한 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보다 30배, 60배, 100배 많은 대가를 받는 것을 원합니다. 그것을 복과 형통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의 현재의 삶에서 생

각해 보십시오. 지금 일하고 수고한 대로 먹고 살고 있는 여러분이야 밀로 복에 거하고 있다는 결론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일할 수 있고 수고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는 수고한 대로 먹고 살아가는 현실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이며 형통입니다. 이 복과 형통을 잃게 되는 것은 자기 집착 속에서 늘 다른 사람의 것과 자신의 것을 비교하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3절의 내용도 다르지 않습니다. ‘네 집 안방에 있는 아내’라는 말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안방에 아내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역시 평범한 삶입니다.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고 하니까 특별히 뛰어난 아내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아닙니다. 아내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존재라는 의미에서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아내를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존재로 바라본다면 아내가 어떤 사람이든 감사할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은 것도 일상생활입니다. 자식을 어린감람나무라 하는 것 역시 특별히 공부 잘하고 성공하는 자식이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자식이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자식이 다른 자식에 비해 뒤떨어진다고 해도 오로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에 마음을 둘 것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자입니다.

4절에서 또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는다고 한 것을 보면 복은 우리가 기대하는 특별한 것으로 주어지지 않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자는 평범한 것들로 여겼던 것이 평범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평범하다고 생각한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베푸신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평범한 것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며 이것이 복 있는 자로 복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자는 자기의 삶이 은혜로 가득함을 보게 될 것이고 따라서 기쁨과 감사로 확장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과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붙들려서 구덩이에 던져서 죽음의 위기에 처합니다. 예레미야가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구덩이에 던져진 것입니다. 선지자가 외친 말은 한결같습니다. 처음이나 나중에 다르지 않습니다. 신변

의 위협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위 때문에 말씀을 가감하지도 않았습니 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분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들었는데 왜 분노하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쪽에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말씀과 말씀 아닌 것을 구분하였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말은 말씀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그를 악한 자로 규정하여 구덩이에 던진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였습니다. 말씀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에도 연연하지 않았습니 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보다는 나 자신에게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말씀이 바르게 증거 되고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어떤 인생을 사는가에 더 관심을 집중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본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예레미야처럼 하려는 흔적이라도 보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흔적조차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자신이야말로 위선으로 가득한 악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왕궁의 고관이 선지자의 말이 듣기 싫어 그를 붙들어 구덩이에 던져 버리고, 그런 죽음의 위기가 올 것을 알면서도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증거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하나하나가 우리는 말씀에 대해 어떤 입장을 지키며 살고 있는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큰 흠이 없게 보이지만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악하다’는 선언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듣기 싫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진 자가 곧 우리 자신이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실천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를 세우시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으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 편에 서서 그를 구덩이에서 나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에벳멜렉입니다. 에벳멜렉은 구스 사람으로 왕궁의 내시였습니다. 그가 왕에게 나아가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진 것은 악하며 성 중에 떡이 떨어졌으니 예레미야는 거기서 굶을 죽을 것이라고 간언합니다. 그의 말을 들은 시드기야 왕은 삼십 명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구덩이에서 끌어내라고 합니다.

에벳멜렉은 왜 이러한 행동을 할까요?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그에게 예레미야는 악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에벳멜렉이 내시이고 구스인이긴 하지만 성이 무너지고 유다가 패망하는 것은 그에게도 불행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에벳멜렉은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악한 자로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고 할 때 그는 그것을 악하다고 하면서 살려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말씀은 성령으로만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고 말씀을 알게 된 신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당연히 말씀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을 두고 ‘이것은 말씀이 아니다’라고 분노하는 무리들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인해 자기 악함을 알게 된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세상의 악함을 증거합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믿는다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상의 악함을 안다면 세상이 처한 진짜 현실이 저주라는 것에 눈이 열릴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신자입니다.

세상의 진짜 현실이 어떤가를 알았다면 그가 의지할 대상은 모든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구출하기 위해 세상에 오시고 세상의 힘에 붙들려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분 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안일하게 세상을 보면서 평안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평안한 듯 보이는 세상이 실체는 멸망이라는 구덩이에 던져져 있음을 알기에 그 멸망을 선포하는 말씀을 당연한 것으

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는 말에 분노하는 것은 유다의 악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악함을 보지 못한 어리석임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이 아닌 것으로 배척하고 분노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십자가를 참된 진리로, 생명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자신의 악함을 알게 됨으로 가능합니다. 저주에 갇혀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자기 현실에 눈을 뜨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 옳았다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함께 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이는 세상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저주를 모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존귀함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분간하지 못합니다. 유다처럼 듣기에 좋은 말이면 받아들이고 거북하면 배척할 뿐입니다.

14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불러 한 가지 일을 물을 것이니 한 마디도 숨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레미야가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15절)고 말하자 결코 죽이지 않겠다고 시드기야가 맹세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관리들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다시 왕에게 전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왕은 성이 무너지고 자신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이미 포로 되어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조롱 받을 것이라며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24절)고 합니다. 예레미야를 걱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문제에 대한 염려로 가득할 뿐입니다.

조롱 받을 것을 염려하는 것 자체가 자신이 멸망의 존재임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 저주의 자식이라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 믿음이며 회개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나의 이름은 없습니다. 저주 받을 자의 이름이 무슨 가치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고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15장

교 독 : 29(시65편)

기 도 : 조규현 장로

찬 송 : 458장

성 경 : 눅 14:12-14

말 씬 : 청할 사람(74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452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4장

축 도 : 설 교 자

■ 오후예배 ■

2시 2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283장

기 도 : 장영대 집사

찬 송 : 502장

성 경 : 시 132:1-18

말 씬 : 여호와의 처소(136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524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 수요일예배 ■

7시 30분 / 인도

■ 교회소식 ■

1. 예배후 제직회 모입니다.
2. 신윤식 목사는 이번 주간 휴가입니다.

●
다음주 기도

오전 - 이성희 장로 오후 - 장영숙 집사

이단 ④

천국에 대한 이들의 교리 또한 기독교와는 전혀 다르다. 이들은 천국을 인생에서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사람의 행위와 소망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천국은 각기 다른 영광의 왕국으로 나뉘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들은 천국을 해의 왕국, 달의 왕국, 별의 왕국으로 구분한다. 해의 왕국은 가장 높은 등급의 천국인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곳이며,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고 속죄의 축복으로 죄에서 깨끗해진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한다. 달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영예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거할 곳이라고 하고, 별의 왕국은 계속 죄를 짓고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살게 되는 곳이라는 것이 이들의 천국관이다.

이들이 이러한 천국관을 합리화하기 위해 인용하는 성경구절이 고전 15:40-41절의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이다. 그런데 요셉 스미스는 이 구절 또한 자기 임의로 조작해 버린다. 그것이 “태양에 속한 육체도 있고 달에 속한 육체도 있고 별에 속한 육체도 있으나 태양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달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별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이다. 하지만 고전 15장은 부활한 영광의 몸에 대한 이야기이지 천국에 대한 것이 아니다.

물몬교의 천국관에 따르면 그들에게 지옥은 없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 지옥에 대해 말씀한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부자를 내세워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묘사한다.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반드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물몬경에서도 지옥에 대해 말한다는 것이다. 물몬경 나이 28장을 보면 악마를 영혼을 속여 지옥으로 인도해 가는 존재로 말한다. 악마는 지옥은 없고 악마만 없다고 속이는 일을 하고 이러한 악마에 붙들리는 것은 끝이 없는 고통의 처소인 지옥에 붙들리는 것이라고도 말한다. 이처럼 물몬경도 지옥에 대해 말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마치 지옥이 없는 것처럼 간주하는 모순을 보이는 것이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은 가족과 조상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다고 한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영의 세계인데 사후 세계인 그곳에서도 주님의 종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수많은 영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자녀들에게 복음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다. 이것은 천주교의 연옥 교리와도 비슷하다.

사실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지옥에 가야 한다는 것은 세상이 생각할 때 공평하지 않다. 적어도 똑같이 복음을 듣게 해서 믿지 않은 자를 심판한다는 것이 공평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물몬교의 주장은 합리적이라 생각될 수 있다. 인생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사후 세계에서 주의 종들에 의해 복음을 전파 받게 된다는 것이야 말로 구원을 향한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성전에서 하는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죽은 가족과 조상들을 위한 대리 의식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자신의 구원에 필요한 의식들을 받지 못한 조상들을 위해 성전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여러 가지 신성한 의식들을 집행한다는 것이다.